

제9장 주포면(周浦面)

보령군 주포면에 속한 지역으로서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당시 한서(漢嶼), 마동(馬洞), 고만(高巒), 사당(祠堂), 조금진(造今津), 송도(松島), 대동(大洞), 산고내(散古乃), 내평(內坪), 신촌(新村), 간평(間坪), 중평(中坪), 장항(獐項), 외평(外坪), 대동(臺洞), 궁언(宮堰), 거어(巨於), 주교(舟橋), 명계(鳴溪), 산천(山川), 관촌(館村), 이목(梨木), 원당(元堂), 사청(射聽), 고남(古南), 도랑당(道郎堂)의 26개 동리와 장척면(長尺面)의 외강(外江), 내강(內江), 마명(馬鳴), 구수(九水), 상리(上里), 망선(望仙), 하리(下里)의 7개 동리와 목충면(木忠面)의 사동(砂洞), 신리(新里), 관리(寬里), 후동(後洞), 하창(河倉), 죽림(竹林), 내묘(內墓), 신촌(新村), 마산(馬山), 목리(木里), 대동(垔洞), 벌리(伐里), 어초(於草), 내기(內基)의 14개 동리와 오천군(鰲川郡) 천동면(川東面)의 산수동(山水洞) 일부를 병합하여 주포면이라 하여 고정(高亭), 송학(松鶴), 은포(隱浦), 주교(舟橋), 관산(館山), 봉당(鳳堂), 신성(新城), 마강(馬江), 관창(寬倉), 신대(新垔)의 10개 리로 개편 관할하였는데 1962년 11월에 신성리(新城里)를 옛 보령군청이 있던 곳이므로 보령리(保寧里)로 고쳤다.

1983년 2월 15일에는 오천면 갈현(葛峴)2리를 연지리(蓮芝里)로 개칭하여 주포면에 편입시켰다.

1971년 4월 1일 주교 출장소가 설치되었다가 1989년 4월 1일 면으로 승격되어 현재의 주포면은 관산(館山), 봉당(鳳堂), 보령(保寧), 마강(馬江), 연지(蓮芝)의 5개리를 관할한다.

- 장척면(長尺面) : 옛 보령현의 서북쪽에 있던 면. 현재의 주포면 마강리·보령리·봉당리, 청소면 진죽리·장곡리·야현리 지역이다.
- 주포면(周浦面) : 옛 보령현의 중앙에 있던 면. 현재의 주교면 고정리·송학리·은포리·주교리, 주포면 봉당리·관산리 지역에 속한다.
- 천동면(川東面) : 옛 오천군의 동쪽 지역.

1. 관산리(館山里)

본래 보령군 주포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관촌(館村), 이목동(梨木洞)과 명계리(鳴溪里) 산천리(山川里)의 일부를 병합하여 관촌(館村)과 산천(山川)의 이름을 따서 관산리라 하여 주포면에 편입하였다.

- 산넛골 : 산낙골의 다른 이름.
- 삽재 : 역말 산낙골에서 주교면 관창리로 넘어가는 재. 옛날에는 통행량이 많았던 큰 고개이다. 관창리에서는 역재라고 부르고 관산리에서는 삽재라고 부른다.
- 아랫불곡재 : 역말에서 도창이로 넘어가는 고개. 윗불곡재의 남쪽이다. 농공단지로 조성되었다.
- 초분고랑 : 참사굴에서 당재 쪽으로 뺀 골짜기. 옛날 초분(草墳)이 많았다고 전한다.
- 개양지고랑 : 역말 북쪽에 있는 들. 배나굴의 서쪽 부분이다.
- 개자지 : 듄부굴고랑의 남쪽 산사면.
- 고린장굴 : 배나굴 동쪽에 있는 골짜기. 고린장(백제 돌방무덤을 보령지방에서 부르는 이름)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 고인돌 : 관로재 옛 과수원 안에 두 개가 나란히 있다.
- 곱팡재 : 산낙굴 동쪽 계곡에 있는 말뚝병 동남쪽의 평평한 지형. 말뚝병에서 목욕 시킨 말을 이곳에서 훈련시켰다는 전설이 있다.
- 곱판재 : 원땡이 마을과 역구력목 마을 사이에 있는 언덕. 옛날 곱을 치던 곳이라고 한다. 아주자동차대학이 들어서 있다.
- 관로재 : 참사굴 남쪽에 있는 재. 과수원이 있는 곳이다.
- 관말 : 역말의 중심부. 정자나무가 있고 옛 궁집이 있던 곳이다.
- 관산넛갈 : 관산리 역말에서 내려오는 내.
- 관산도창이 : 도창이 마을의 관산리 부분.
- 관촌(館村) : 관말의 한자 표기.
- 광성재 : 산낙굴 동쪽에서 배나굴로 넘어가는 고개.
- 구렁목고개 : 관산리의 북쪽 끝. 보령리와 의 경계지역. 주변의 산자락을 통칭해서 부르는 이름이다.
- 군랑 : 역말 당재에서 서쪽으로 내려온 산줄기가 끝나는 곳이다. 이곳은 과거 군사용 창고가 있었다고 전하며 구한말에는 개신교인들이 들어와 살던 곳이라고도 전한다.

이곳에는 넓은 국유지가 있다고 한다.

- 군량들 : 관산리의 서남쪽, 21호 국도 동쪽에 있는 들.
- 궁집 : 여성부원군(驪城府院君) 민치록(閔致祿)의 묘 밑에 있던, 묘를 관리하던 집이다. 99간의 집이었다고 전하나 없어졌다. 주교면 신대리로 옮겼다는 전설이 있다.
- 내안들 : 도창이 마을 서쪽에 있는 들.
- 농공단지 : 관산리 역말과 도창이 마을 사이에 1990년 11월에 조성되었다.
- 당재 : 관말 남쪽에 있는 동그란 산이다. 산의 정상에는 신수인 큰 소나무가 있고 소나무 밑에 1칸의 당집이 있었다. 정월 초사흘에서부터 보름 사이에 택일을 해서 제를 지냈다. 당주를 뽑고 집집마다 쌀 3되씩을 거두어 제물을 장만했는데 1960년대부터 제를 지내지 않는다고 한다.

원래는 관말과 산낙굴 사이의 산에서 지냈다고 하는데 여성부원군(驪城府院君) 민치록(閔致祿)의 묘를 이곳으로 이장한 후 왕실에서 지내지 못하게 하여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고 전한다. 원래 지내던 곳은 뒷당재, 근래까지 지내던 곳은 앞당재로 구분하여 부르기도 한다.

- 도창이 : 관산리의 서쪽, 21호 국도변에 있는 마을. 마을의 일부는 봉당리에 속하여 봉당도창이, 관산도창이로 구분하여 부르기도 한다.
- 도청리(都廳里) : 도창이의 한자 표기.
- 동메 : 당재 남서쪽에 있는 봉우리. 높이 53m이다.
- 동구재 : 역말 산낙굴에서 들판고랑, 개가지 쪽으로 넘어가는 고개. 옛날 이곳에 장승이 있었다고 전한다.
- 뒷당재 : 관말과 산낙굴 사이에 있는 산으로 여성부원군(驪城府院君) 민치록(閔致祿)의 묘를 이장하기 전에는 이곳에서 당제를 지냈다고 한다.
- 들판고랑 : 앞당재 남쪽에 있는 골짜기. 동구재로 산낙굴과 통한다.
- 말뚝병 : 산낙굴 마을 동쪽 큰고랑의 남쪽에 있는 웅덩이. 옛날 청연역(靑淵驛)이 있을 때 역마 50~60 마리를 이곳에 데려다 목욕시켰다는 전설이 있다.
- 무네미재 : 관산리 역말에서 주교면 주교리 삼거리로 통하는 재이다. 물이 흐른 관산리 쪽에서 물이 귀한 주교리 쪽으로 물을 넘겨 붙여진 이름이다. 무네미재의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에서는 화살촉 같은 석기가 자주 발견된다고 한다.
- 물방아보 : 관산리의 서남쪽, 주교면 주교리와의 경계지역에 있던 보.
- 방아다리고랑 : 윗절굴 안에 있는 골짜기. 밭을 구르면 속이 비어있는 것처럼 쿵쿵 소리가 난다고 한다.

- 방천보 : 가줄 저수지와 도챙이 마을 사이에 있는 보.
- 배나굴 : 역말의 북쪽 부분.
- 배나무굴 : 배나굴의 다른 이름. 보통은 배나굴이라고 부른다.
- 배재산 : 관산리 동쪽에 있는 높은 산. 보령리, 청라면 장산리와 경계한다.
- 범의턱거리 : 위절굴 위에 있는 바위. 배재산 서쪽 사면에 있다.
- 부원군묘 : 관말과 배나굴 사이에 있는 산줄기 끝에 여성부원군(驪城府院君) 민치록(閔致祿)의 묘가 있었는데, 최근 경기도 여주로 이장하였다. 민치록은 명성황후의 아버지로, 명당을 찾아 이곳에 이장하였다고 전한다. 이 묘를 만든 뒤부터 묘지 뒤에 있는 길을 다니지 못하게 했고, 당을 옮겼다고 한다.
- 불당굴 : 산낙굴 마을회관 뒤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산낙굴 : 역말의 남동쪽 골짜기 부분.
- 산천동(山泉洞) : 산낙굴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산천리(山川里) : 산낙굴의 한자 표기.
- 솔모루 : 도챙이 마을과 역말 사이에 있던 산줄기의 끝. 소나무가 울창하였다. 농공단지로 조성되었다.
- 솔모루들 : 관산리 역말 입구 즉, 도챙이 마을 남쪽에 있는 들.
- 수달피들 : 도챙이 마을 서쪽에 있는 내안들의 하천변을 지칭하는 이름. 옛날에 수달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한다.
- 아랫말 : 역말의 서쪽 부분.
- 아오실굴 : 관산리의 서쪽, 도챙이 마을 동쪽 골짜기. 주포 농공단지가 되었다.
- 아오실저수지 : 아오실굴 북쪽에 있던 저수지 농공단지 건설로 없어졌다.
- 아주자동차대학 : 주포농공단지의 북쪽에 있다. 1995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뽑아 개교하였다. 처음에는 대천전문대학이라고 하였다가 교명을 변경하였다.
- 안보 : 역말에서 내려가는 내가 합쳐지는 곳에 있는 보. 방천보와 물방아보 사이에 있다.
- 앞당재 : 관말 마을 남쪽 소나무가 있는 산이다. 1960년대까지 소나무 밑에 당집을 짓고 당제를 지냈다. 원래 당제는 뒷당재에서 지냈는데 여성부원군(驪城府院君) 민치록(閔致祿)의 묘를 이장한 후 이곳으로 옮겼다고 전한다. 뒷당재와 구분해서 부르는 이름이다.
- 역구력목 : 역말의 북쪽 끝에 있는 마을. 모두 아주자동차대학 부지에 흡수되었다.
- 역리(驛里) : 역말의 한자 표기.

- 역말: 관산리의 중심 마을이다. 옛날 금정도(金井道)에 속한 청연역(靑淵驛)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배나굴, 관말, 아랫말, 참사굴, 산낙굴로 구성되어 있다.
- 역재: 삼재의 다른 이름. 주로 관창리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 역촌(驛村): 역말의 한자 표기.
- 연방죽: 여성부원군(驪城府院君) 민치록(閔致祿)의 묘 서남쪽에 있던 방죽이다. 부원군 묘를 만든 후 만들었다고 전하나 현재는 논이 되어 있다.
- 오상갈고랑: 역구령목 마을 동쪽에 있는 골짜기.
- 윗불곡재 : 역말에서 도창리로 넘어가는 고개. 아랫불곡재의 북쪽이다. 농공단지로 조성되었다.
- 윗절굴 : 산낙굴 마을의 동쪽에 있는 큰 골짜기.
- 이목동(梨木洞) : 배나굴의 한자 표기.
- 작은고랑 : 산낙굴 마을 동쪽에 있는 골짜기. 큰고랑의 서쪽이다.
- 정자나무 : 역말 관말 안에 있다. 나무 밑에 마을 회관이 있다.
- 참사굴 : 관말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 지하수가 많아 수령논이 많다. 농공단지와 아주자동차대학 부지에서 옮겨온 묘지가 많이 들어서 있다. 묘지 이장 공사를 할 때 밭에서 패총이 발견되었다고 전한다.
- 참사굴 : 참사굴에 있는 마을.
- 청연역(靑淵驛) : 관산리 역말의 옛 역. <1911, 朝鮮地誌資料>
- 청연점(靑淵店, 녀말주막) : 주포면 관산리 역말주막 <1911, 朝鮮地誌資料>
- 큰고랑 : 산낙굴 마을 동쪽에 있는 큰 골짜기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 20여 년 전 까지 규석을 캐던 광산이 있다.
- 황새집계 : 솔모루 동쪽에 있는 들. 옛날 근처의 소나무에 황새집을 지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한다.



당재의 신수(1996)



옛 여성부원군 민치록 묘와 신도비(1996)

2. 마강리(馬江里)

본래 보령군 장척면(長尺面)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내강리(內江里), 외강리(外江里), 마명리(馬鳴里), 구수동(九水洞), 상리(上里), 망선동(望仙洞)의 각 일부와 오천군(鰲川郡) 천동면(川東面) 산수동(山水洞) 일부를 병합하여 마명(馬鳴)과 내강(內江)의 이름을 따서 마강리라 해서 주포면에 편입하였다.

- 가로고개 : 마강리와 청소면 사이에 있는 고개. 21호 국도가 통한다. 이곳에는 청소면 야현리 남방재와 마강리에 사는 처녀 총각이 사랑했으나 고개에 막혀 만나지 못했다는 등 예부터 내려온 전설이 있고, 대천에서 한밤중에 택시에 탄 소복 입은 처녀가 이곳에서 내렸다는 등 근래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야기도 전한다.
- 감태봉 : 빗강술 참새굴 마을 동쪽에 있는 214.8m의 봉우리이다.
- 감투봉 ; 감태봉의 다른 이름.
- 강수리 : 강술의 다른 이름.
- 강술(江述) : 강술의 한자 표기.
- 강술 : 마강리의 동쪽 마을. 안강술과 빗강술로 구분된다.
- 건널목 : 주포-오천간 도로와 장항선 철도가 만나는 건널목. 최근 고가도로가 만들어짐.
- 고랑말 : 저건너의 다른 이름. 봉당리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 고마창 : 안강술 서쪽 아릿고개 남쪽에 있는 들. 주로 밭으로 이용된다.
- 구수동(九水洞) : 구술의 한자 표기.
- 구술 : 마강리의 서쪽 끝에 있는 마을로 위뜸과 아래뜸으로 구분된다. 오천면 청소면과의 경계지역이다.
- 구술저수지 : 마강리 서쪽 구술 마을 안에 있는 저수지. 일제 시대에 일본인 마사이 다기다(正井瀧太)가 막았다고 전한다.
- 구술 : 구술의 다른 이름.
- 금반향 : 안강술 아랫말 남쪽에 있는 산. 안산의 서쪽 부분이다. 풍수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묘지가 있다.
- 금점골 : 안강술 윗말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참나무골과 안새목골 사이에 있다.
- 내강리(內江里) : 안강술의 한자 표기.
- 농바위 : 용바위의 다른 이름.

- 대곶말 : 밧강술 남쪽에 있는 마을. 평구재를 넘어 보령리와 통한다.
- 뒷메산 : 대곶말 마을 동쪽에 있는 산(117.1m). 진당산의 서쪽 줄기이다.
- 따불재 : 안강술에서 청소면 야현리 따불로 넘어가는 재.
- 띠아굴재 : 강술 마을 동쪽에 있는 재. 시궁굴재 정상에서 북쪽 산 능선을 따라가다 청라면 옥계리 질마재로 넘어가는 재이다.
- 마강1리 : 1반 안강수리, 2반 새뜸, 3반 질밑, 4반 밧강수리, 5반 대곶말.
- 마강2리 : 1반 구수동.
- 마명(馬鳴) : 말월이의 한자 표기.
- 마명동(馬鳴洞, 말우리) : 말우리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마시굴 : 장항선 철도가 통과하는 골짜기. 무터굴의 동쪽이다.
- 말뚝밭 : 안강술 윗말 동쪽에 있는 밭. 산 밑에 있는 평평한 지형이라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말우리 : 말월이의 다른 이름.
- 말월이 : 21호 국도의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요즘에는 보통 질밑이라고도 부른다. 양지뜸과 마시굴 사이에 있는 작은 마을만을 일컫기도 한다.
- 매봉재 : 마시굴과 말월이(질밑이) 마을 사이에 있는 봉우리. 청소면과의 경계이다. 높이 74.0m이다.
- 무터굴 : 장항선 철도 서쪽에 있는 골짜기.
- 밧강술 : 강술 마을의 남쪽 부분을 통칭하는 말. 마을 회관 부근 마을만을 지칭하기도 한다.
- 밧강술저수지 : 밧강술에 있는 저수지.
- 방죽굴재 : 질밑이(말월이) 마을 서쪽에서 청소면 장곡리 방죽굴로 통하는 재.
- 보십재 : 구술 위뜸에서 청소면 장곡리 새울로 넘어가는 재.
- 부엉배 : 구술저수지 남쪽에 있는 산. 불당굴재의 동쪽 봉우리이다.
- 부엉배쪽뿌리: 부엉배 동쪽의 산줄기 끝.
- 불당굴재 : 구술 마을에서 봉당리 불당굴로 통하는 재.
- 산밑이 : 질밑이(말월이) 마을의 북쪽 부분.
- 산제샘 : 안강술 동쪽, 안새목골 입구에 있는 샘. 과거 산제 지널 때 사용하던 샘이다. 산제 지널 때는 제주가 이곳에서 목욕재계하는 등 여러 금기 사항을 철저히 지켰다. 샘 옆에 오래된 돌배나무가 있다.
- 산제술 : 안강술 앞 산능선 위에 있는 소나무이다. 안강술 사람들이 200여 년 전까지

정월 열나흘 새벽에 산제를 지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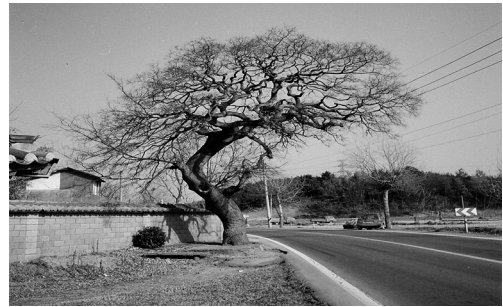
큰 소나무인데 1995년 여름, 바람에 부러져 죽었다.

- 새뜸 : 안강술 입구에 있는 마을. 21호 국도의 동쪽 부분을 통칭한다.
- 서낭나무 : 서낭댕이에 있는 신수인 팽나무를 부르는 이름.
- 서낭댕이 : 구술저수지 제방 동쪽, 도로 남쪽에 있었다.
- 서낭댕이 : 밧강술의 서쪽, 21호 국도 도로변(서쪽)에 있었다. 돌무더기는 없어지고 신목인 팽나무만 남아 있다.
- 술서낭댕이 : 무터골에서 청소면 장곡리 망성굴로 통하는 언덕 위에 있는 성황당. 망성굴 사람들이 위하는 성황당이다. 고속도로 공사로 없어졌다.
- 시궁굴재 : 밧강술에서 청라면 옥계리 시궁굴로 넘어가는 재. 진당산 정상 of 북쪽에 있는 재이다.
- 신촌(新村) : 새뜸의 다른 이름.
- 아래뜸 : 구술 마을의 동쪽 부분. 저수지의 동북쪽 부분이다.
- 아랫말 : 안강술 서쪽 마을.
- 아릿고개 : 안강술 아랫말의 북쪽에 있는 마을. 청소면 야현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가로고개와 따불재 사이에 있다.
- 안강술 : 마강리 동쪽 강술 마을의 북쪽 부분. 아랫말과 윗말로 구분된다.
- 안산 : 안강술 마을 앞에 있는 산. 산제술이 있는 산이다.
- 안새목골 : 안강술 윗말 동쪽에 있는 큰 골짜기. 금점골과 진등 사이에 있다.
- 양지뜸 : 질말이(말월이) 마을의 북서쪽 부분.
- 어장간 : 구술 아래뜸의 서쪽, 구술저수지 제방의 북쪽 부분이다.
- 여단산 : 강술 새뜸 마을과 밧강술 사이에 있는 산. 옛 보령현의 여단(厲壇)이 있던 곳이라고 전한다. 여단은 여제단(厲際壇)의 준말로 여귀(厲鬼)에게 제사 지내는 제단이다. 제사를 못받는 귀신이나 전염병에 죽은 불쌍한 귀신을 모아 한꺼번에 제사 지내던 곳으로 각 현마다 한 곳씩 있었다. 여단(厲壇)이 있던 곳은 마강리 산 40-2 번지 595㎡로 국유지로 되어 있었으나 21호 국도 확장으로 도로가 되었다.
- 여저미 : 여단산 북쪽에 있는 논. 여단의 밑이라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 열녀문 : 서낭댕이 옆에 있는 최중환(崔鍾環)의 처 밀양박씨(密陽朴氏)의 비각이다. 박씨는 19세에 결혼하였는데, 남편이 공주고등학교에 취학하였다가 객지에서 죽자 남편의 관이 돌아오던 날 몇 번이고 혼절하였으며 끝내는 그날 밤 빈집에서 목매 자결하였다. 일제시대에 유림(儒林)에서 비와 비각을 세웠다.

- 예전다리 : 건널목 밑에 있는 다리를 지칭하기 도하고, 보령리에서 내려오는 내에 놓여진 철교(봉당리 구역)를 지칭하기도 한다.
- 예전다리 : 철도 건널목 북쪽의 작은 마을. 강술 마을에서는 철뚝너머라고 부른다.
- 예전다리들 : 21호 국도 서쪽에 있는 들.
- 외강리(外江里) : 밧강술의 한자 표기.
- 용바위 : 진당산 정상 서북쪽에 있는 바위. 농바위라고도 부른다.
- 원덕굴 : 참새굴 마을의 동쪽, 감태봉의 서쪽에 있는 골짜기.
- 원정굴 : 밧강술과 21호 국도 사이에 있는 들.
- 위뜸 : 구술 마을의 서쪽 부분. 구술저수지의 북쪽 마을이다.
- 윗말 : 안강술의 동쪽 부분.
- 유당산 : 여단산의 다른 이름.
- 음지뜸 : 질밋이(말월이) 마을의 남쪽 부분.
- 재빼기 : 질밋이 마을 남쪽 즉, 서낭댕이 서쪽 언덕. 모두 밭으로 개간되었다.
- 저건너 : 구술 마을의 저수지 남쪽 부분. 구술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 절터굴 : 밧강술 동쪽에 있는 골짜기. 진등의 남쪽 골짜기이다.
- 죽촌(竹村) : 대숲말의 한자 표기.
- 진당산 : 마강리 강술 동남쪽 끝에 있는 산. 과거 보령현의 진산이었다. 꼭대기에는 돌로 쌓은 당집이 있다. 산 정상부에는 테피식 산성이 있고, 통일신라 시대의 기왓장이 출토된다. 높이 351.0m이며 삼각점이 있다.
- 진등 : 안강술 윗말과 참새굴 마을 사이의 산줄기. 긴 능선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참나무굴 : 안강술 윗말 북쪽에 있는 골짜기.
- 참새굴 : 밧강술의 동쪽 마을.
- 철뚝너머 : 철도 건널목 서쪽에 있는 작은 마을. 예전다리라고도 부른다. 강술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 초분골 : 대숲말 서쪽에 있는 밭. 옛날 초빈(草殯)을 했다고 전한다. 현재는 모두 밭으로 개간되었다.
- 핑구재 : 대숲말에서 보령리로 통하는 재.
- 호랭이구녕 : 진당산 정상 서쪽에 있는 바위 구멍.
- 화장굴 : 대숲말 동남쪽 골짜기. 옛날 화장하던 곳이라고 전한다. 진당산의 서쪽 골짜기이다.



밭강술 들샘(1996)



서낭나무(1996)

3. 보령리(保寧里)

본래 보령군 주포면 지역으로 옛 보령현의 치소가 있던 곳이다. 읍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원당리(元堂里), 사청리(射廳里)의 각 일부와 장척면의 상리(上里), 하리(下里)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신성리(新城里)라 하였다가 1962년 11월 보령리로 고쳤다.

- 객사터 : 현 주포초등학교 자리라고 전한다.
- 고린장터 : 질밀저수지 동북쪽 산사면. 고린장(백제 시대의 석실묘를 보령에서 부르는 이름)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1984년 충남대학교 박물관에서 12기의 고분을 발굴하였다.
- 구상재 : 구성재의 다른 이름.
- 구성재 : 봉당리 원댕이 마을과 보령리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국도 21호가 지난다. 이 고개 바로 동쪽에 있는 보령리 전560, 561, 562번지 일대가 백제 시대부터 서기 1400년까지 보령현의 치소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에서는 신촌이라 새겨진 기와 조각과 문초석이 발견되었다.
- 농바위 : 배재산 큰골에 있는 바위.
- 담안 : 보령리의 서쪽 끝에 있는 마을. 버스정류장과 농협창고가 있다.
- 당산 : 보령리 중심 마을 남쪽에 있는 낮은 산.
- 당산너머 : 보령리의 남쪽 끝에 있는 골짜기. 원댕이저수지의 위쪽이다.
- 당산말랭이 : 향교골저수지 남서쪽 산줄기. 당산 줄기가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당산밑 : 당산의 북쪽, 옛 국도 남쪽에 있는 마을.
- 덜개 : 진당산 서쪽 사면에 있는 바위너덜. 홍두깨등 양쪽에 있다.
- 도랑뎡이저수지 : 봉당리 도랑뎡이 마을 남쪽에 있는 저수지. 저수지는 보령리에 속한다.
- 동헌터 : 현 보령중학교 교장실 자리라고 전한다.
- 목당샘 : 중리 우체국 옆에 있던 샘으로 장마와 가뭄에도 수위의 변화가 없던 샘이다. 물이 좋아 주변에서 많이 이용하였으나 근래 개인 우물을 파고 상수도를 이용하면서 이용자가 없어졌고 우체국 신축과 도로 확장으로 없어졌다.
- 방죽안 : 역구덕목과 향교굴저수지 사이에 있는 논이다. 옛날 이곳에 제방을 쌓고 당산 줄기를 뚫어 당산너머로 물을 넘기려 했다고 전한다.
- 배자골 : 배재산 북쪽에 난 골짜기. 큰골의 서쪽에 있다. 골짜기의 입구에는 옛날 사기그릇을 굽던 가마가 있다.
- 배재산 : 보령리의 남동쪽에 병풍처럼 에워싼 산. 청라면, 주교면과 경계한다. 대부분이 산림청 소유이다. 이 산 밑에까지 배가 들어왔다는 전설이 있다.
- 보령읍성 : 세종 14년인 1430년에 축성 공사를 시작하여 1432년에 객관(客館)을 비롯한 각종 관아(官衙) 건물을 완성하였다. 문중실록에 의하면 둘레 2109척, 높이 12척, 여장 높이 2 척, 적대 8곳, 문 3곳, 옹성 2곳, 여장 412타, 우물 3곳, 해자 둘레 2190척으로 기재되어 있다. 현재의 성곽 둘레는 약 870m이다.
- 보령향교 : 진당산 아래 향교굴에 있다.
- 불무굴 : 질밑저수지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옛날 이곳에서 철을 다루었다고 전한다. 현재도 쇠뿔(屑鐵)이 발견된다고 한다.
- 빙애길 : 중당재에서 마강리 쪽으로 통하는 길. 벼랑길이라는 의미이다. 진당산의 서쪽 사면을 가로지르는 길이다.
- 삼시랑당골 : 진당산의 남쪽 골짜기이다. 질재의 북쪽에 있다. 계곡에 큰 바위가 있고, 부처모양의 바위도 있었다. 임신 못하는 부인이 이곳에 와서 기원을 하면 임신할 수 있다는 전설이 있어 예부터 많은 사람들이 기원하던 장소이다. 부처 모양의 바위는 일본인들이 가져갔다고 전한다.
- 상리(上里) : 윗말의 다른 이름.
- 상리말 : 윗말의 다른 이름.
- 샘바탕 : 설바탕의 다른 이름.
- 생교두릅산 : 보령향교 뒷산.

- 성뚝 : 보령읍성
- 성뚝밭 : 윗말의 성 아랫부분을 부르는 이름.
- 성안 : 보령읍성의 안. 보령중학교와 주포초등학교가 있다.
- 썰바탕 : 삼시랑당골의 위쪽에 좋은 샘이 있고 이곳에서 청라 쪽으로 나무하러 다니던 사람들이 물을 먹고 쉬어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샘바탕이라고도 한다.
- 신성리(新城里) : 보령리의 옛 이름.
- 아랫말 : 보령리의 중심 취락 남서쪽 부분.
- 에미롱바위 : 배재산 큰골 위에 있는 바위.
- 여수죽은골 : 진당산과 배재산 사이 산줄기 서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큰골의 북쪽에 있다.
- 역구력목 : 중리 마을 남쪽 관산리 역말에 있던 청연역으로 통하는 길이 지나는 마을.
- 예전다리들 : 보령리 서쪽에 있는 들. 옥거리들의 서쪽을 통칭한다.
- 옥거리 : 중리 마을 서북쪽 지역을 옥거리라고 한다. 이곳에는 옥사(獄舍)가 있었다고 전한다. 옥사(獄舍)는 대개 성 밖에 별도의 건물로 두는데, 보령현의 옥사(獄舍)가 이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옥거리들 : 보령성 서쪽에 있는 들.
- 윗말 : 보령성의 동남쪽에 있는 마을.
- 읍내(邑內) : 보령리 중심 마을을 부르는 이름.
- 읍내리(邑內里) : 보령리의 중심부를 통칭하는 말. 옛날 보령현의 치소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장승백이 : 핑구재의 서쪽 끝. 산 모퉁이이다. 지명만 장승백이일 뿐 노인들도 장승을 보지 못했다고 하므로 아주 오래전에 없어진 듯하다. 1987년 이곳에 6각정을 세우고 간이 휴게소가 조성되었다.
- 장터 : 중리 마을의 서북쪽에 있던 장터이다. 이곳은 옛날 일본인들이 다니던 玉村 학교 자리로 교육청 소유였는데, 1957년 보령리 마을 번영회에서 500평을 구입, 장옥 2채를 세우고 시장을 개설하였다. 시장 개설 기념으로 난장(씨름 등 온갖 오락 행사가 벌어지는 잔치 마당)을 5일간이나 열었다고 한다. 근래 자동차 교통의 발달과 상설 시장의 발달로 장꾼이 줄어들어 1970년대에 완전히 폐장되었고, 장터 땅도 개인에게 매각되었다. 장이 서는 날은 5일 10일이었다.
- 장터거리 : 해산루 앞에서 양조장에 이르는 주변을 말한다. 매 5일 10일에 장이 섰던

곳이다. 일제 시대에는 제법 시장이 잘 운영되었으나 점차 쇠퇴하다가 1957년에 과거 일본인 학교 자리에 500평을 마련하여 장육을 짓고 시장을 개설하였다.

- 절터 : 주포학생야영장 자리에 있었다. 수십 개의 주춧돌이 있었으나 모두 없어졌다. 그중 2개가 주포학생야영장 현관 앞에 놓여 있다.
- 주계산(舟繫山) : 배재산의 다른 이름.
- 주포면사무소 : 원래는 성안 보령중학교 자리에 있다가 적산가옥인 중리 마사이 다기다(正井瀧太)집으로 옮겼다. 이 건물을 최근까지 사용하다가 주교면이 분리된 후 신축하였다.
- 주포학생야영장 : 향교굴 안의 옛 절터에 있다. 주변이 모두 충청남도교육청 소유이다. 때문에 1981년 7월 건립되었고, 충남 서부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2박 3일 간씩 야영 훈련을 하는 곳이다.
- 중당 : 호랭이골의 동쪽 산능선이다. 뱅에길이 통하는 곳인데 옛날 진당산에서 당제를 지낼 때 올라가다가 잠시 쉬면서 제를 지내던 곳이다.
- 중당재 : 진당산 정상과 질재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청라 장산리 오봉산으로 통하는 고개로, 옛날 나무하러 다니던 고개이다.
- 중리(中里) : 보령읍성 남쪽 마을. 보령리의 중심부로 면사무소, 경찰지서, 우체국이 위치한다.
- 지내제언(池內堤堰) : 보령중학교 아래운동장에 있던 옛 저수지.
- 지을현(地乙峴) : 질재의 한자 표기.
- 진당산(鎭堂山) : 보령현의 진산(鎭山)으로 높이 351.0m이다. 산의 정상에는 1930년대까지 당집이 있었고, 정월 초에 택일을 해서 당제를 지냈다고 한다. 지금도 돌로 쌓은 당집 흔적이 남아있는데, 당집의 북쪽에 1950년대 말까지 몇 아름되는 큰 팽나무가 있었다고 전한다. 팽나무는 속이 비어 있었고, 그 속에서 많은 돈이 나왔다고 한다. 근래까지 산의 정상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산의 정상 부분에는 진당산성과 건물지가 있고, 그릇과편과 함께 많은 명문기와가 출토된다.
- 진당산성 : 진당산 정상에 있는 성.
- 진등 : 배재산 정상에서 북쪽으로 내민 산줄기. 배재골과 큰골 사이에 있다.
- 질 밑저수지 : 질재골 안에 있는 저수지. 일제시대에 마사이 다기다(正井瀧太)가 막았다고 전한다.
- 질재 : 진당산과 배재산 사이에 있는 고개로 청라면 장산리 질굴로 통하는 큰 고개이다.

이 길을 통하여 청라면 사람들이 보령현으로 왕래하였고, 보령중학교로 통학하기도 하였다. 근래에는 이용되지 않다가 1990년 배재산 중턱으로 폭 4m의 임도를 개설하고 최근 포장하였다.

- 질재골 : 청라면 장산리 질굴로 통하는 질재에 이르는 골짜기.
- 참새굴 : 주포학생야영장 북쪽에 있는 골짜기.
- 큰골 : 배재산 북쪽에 난 넓은 골짜기.
- 탑산골 : 윗말의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골짜기 위에 옛 절터가 있고 5층탑이 있었다. 탑은 1967년 보령중학교에 옮겨 세웠다.
- 통샘 : 질밑저수지 밑 논 가운데에 있는 샘으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 겨울에는 마을의 빨래터로 붐비던 곳이다.
- 팽나무거리 : 현재의 국도와 주포 오천간 도로가 교차하는 네거리의 동쪽 30m 지점에 커다란 팽나무가 있었고, 이 나무 아래 위 양쪽에 주막이 있었다. 구성재와 장승백이로 연결되는 큰 길의 중간이고 마을 앞들의 중앙이라 두레를 할 때 풍장을 치고 놀던 마당이기도 하다.
- 피천말 : 핑구재 서남쪽에 있던 마을. 5~6가구가 거주하였다고 한다. 천대받던 사람들이 거주하던 곳이라고 전한다.
- 핑구재 : 보령리에서 마강리 강술로 통하던 고개. 옛길은 핑구재를 통하여 보령중학교 아래운동장 동쪽으로 나 있었다.
- 핑긋재 : 핑구재의 다른 이름.
- 하리(下里) : 아랫말의 다른 이름.
- 향교굴 : 보령향교 앞 마을.
- 향교굴저수지 : 보령향교 남쪽에 있는 저수지. 일제 시대에 마사이 다기다(正井瀧太)가 막았다고 전한다. 저수지의 남쪽 산 사면에 기와를 굽던 가마터가 있다. 이곳에서 보령향교에 사용한 기와를 구웠다고 한다.
- 향교동리(鄉校洞里) : 향교말의 다른 이름.
- 호랭이골 : 삼시랑당골 위쪽에 북쪽으로 향한 골짜기.
- 흥두깨등 : 배재골 안에 있는 작은 산능선.
- 흥두깨등 : 진당산 서쪽 사면의 산능선. 덜깨라 불리는 바위너덜 사이를 말한다.
- 화리안 : 하리(아랫말) 서쪽, 21호 국도 동쪽에 있는 들. 근래 매립되어 주택, 농협이 들어서 있다.



권선회 선행자 표창(1992)



보령읍성 복문지(2007)

4. 봉당리(鳳堂里)

본래 보령군 주포면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원당리(元堂里)·사청리(射廳里)의 각 일부와 장척면(長尺面)의 고남리(古南里), 도랑당리(道郎堂里), 하리(下里) 일부를 병합하여 봉당성(鳳堂城)의 이름을 따라 봉당리라 하였다.

- 가마뚝병 : 붓당굴과 부영배보 사이에 있는 웅덩이. 옛날 이곳에서 가마가 빠졌다는 전설이 있다.
- 가마뚝병보 : 가마뚝병 남쪽에 있는 보.
- 개미보 : 고내미 날근터 마을 앞에 있는 보.
- 고남(古南) : 고내미의 한자 표기.
- 고남리(古南里) : 고내미의 한자 표기.
- 고남성 : 봉당성의 다른 이름.
- 고내미 : 봉당리의 동북쪽 마을이다. 마을 서쪽의 봉당성(고남성)에 1400년부터 1432년까지 보령현의 치소가 있었기 때문에 '옛 치소가 있던 산'이라는 의미로 붙인 이름으로 보인다. 윗말, 아랫말, 날근터로 구분된다.
- 고랑말 : 사청 마을의 남쪽 부분.
- 공판재 : 원당이 마을 남쪽 언덕. 옛날 이곳에서 공을 쳤다고 한다.
- 구렁목고개 : 원당이 마을 동쪽에서 관산리 역말로 통하는 고개.
- 구레 : 도랑당이 마을 서쪽 철로변에 있는 들.
- 구사래 : 봉당리 북쪽에 있는 들. 612호 지방도와 철도로 둘러싸인 들이다.
- 구성재 : 봉당리 동쪽 보령리와와의 경계가 되는 고개. 21호 국도가 지난다.

고개의 동쪽 언덕이 옛 보령현 치소가 있던 곳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굿세기 : 고내미 마을 앞 하천과 철도 사이에 있는 들. 벌뜸의 남쪽에 있다.
- 날근터 : 고내미 마을의 남쪽 끝. 연지리와의 경계 지역이다.
- 내안보 : 도챙이 마을과 연지리 칩머리 마을 사이에 있는 보.
- 달갈모탱이 : 사청 마을 남서쪽 구릉의 끝 부분.
- 달밤모탱이 : 달갈모탱이의 다른 이름.
- 대숲말 : 사청 마을의 남서쪽 끝 부분.
- 도랑당(道郎堂) : 도랑탱이의 한자 표기.
- 도랑탱이 : 봉당리의 동북쪽 들 가운데에 있는 마을.
- 도챙이 : 봉당리의 남쪽 끝 관산리와의 경계 지역에 있는 마을. 마을의 일부는 봉당리, 일부는 관산리에 속하여 봉당도챙이, 관산도챙이로 나누어 부르기도 한다.
- 도청(都廳) : 도챙이의 한자 표기.
- 뒷굴 : 고내미 마을 뒤쪽에 있는 골짜기.
- 등안 : 사청 마을의 동북쪽 언덕을 통칭하는 말.
- 등안이 : 사청 마을의 북쪽 부분. 고내미 마을로 통하는 길이 갈라져 삼거리를 이룬다.
- 목뚝뱅이 : 사청 마을 서남쪽에 있는 들. 옹구지들의 남쪽이다.
- 미리기 : 주포말과 철로 사이에 있는 들.
- 벌뜸 : 고내미 마을 앞 내건너를 지칭한다. 모래와 자갈이 쌓여 밭으로 이용되었었고, 일제시대에 사금을 채취하였다고 전한다. 현재도 밭으로 이용하고 1가구가 거주한다.
- 봉당1리 : 1반 원당, 2반 사청, 3반 사청, 4반 도청.
- 봉당2리 : 1반 고남, 2반 도랑당.
- 봉당도챙이 : 도챙이 마을의 봉당리 부분.
- 봉당성(鳳堂城) : 고내미 마을 서쪽 산 정상 부분에 있는 성. 주포면 보령리의 보령 읍성이 만들어지기 전인 서기 1400년부터 1432년까지 보령현의 읍성으로 이용되었다. 보령리 구성재에 있던 옛 읍성이 방어에 불리하자 유리한 이곳으로 옮겨다가 현재의 보령읍성으로 다시 옮겨갔다.
- 부영배 : 봉당리의 북쪽 끝, 마강리와 경계인 산. 붓당굴의 북쪽 부분이다.
- 부영배들 : 봉당리 북쪽 부영배와 철도 사이에 있는 들.
- 부영배보 : 부영배쪽뿌리 근처에 있는 보. 두 하천이 합류하는 곳 남쪽에 있다.
- 부영배쪽뿌리 : 부영배의 동쪽 끝. 마강리 구술과 강술 쪽에서 내려온 하천이 합류한다.
- 불당굴 : 붓당굴의 다른 이름. 주민들은 보통 붓당굴이라고 부른다.

- 붓당굴 : 봉당리의 북쪽 끝에 있는 마을. 고내미 마을의 북쪽이다. 마강리 구술로 통하는 재(붓당굴재)가 있다.
- 붓당굴재 : 붓당굴에서 마강리 구술로 통하는 재.
- 사닥직계 : 등안의 대형관정이 있는 곳이다. 옛날 보령현의 사직단(社稷壇)이 있던 곳이라고 전한다.
- 사청(射廳) : 봉당리의 중앙에 있는 중심 마을이다. 등안이, 큰말, 서청거리, 고랑말, 윗대청, 대숲말로 구분된다. 배재산에서부터 내려온 낮은 구릉의 끝 부분 오목한 곳에 마을이 들어서 있다. 이 마을은 배의 형국이라 샘을 파면 안 된다는 전설이 전한다. 과거에는 마을 남쪽 들 가운데에 있는 아오실샘 물을 이용하였다. 옛날 이곳에서 활을 쏘아 사청(射廳)으로 부른다는 전설이 있다.
- 사청너머 : 구성재와 윗대청 마을 사이의 언덕이다. 축사가 있다. 도랑댕이 마을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 샅푸쟁이 : 고내미 마을의 서쪽에 있는 산 사면을 일컫는 이름.
- 서낭댕이 : 고내미 마을에서 오천면 갈현리 산수굴로 통하는 이미재 꼭대기에 있다. 신수는 잡목이었다.
- 서청거리 : 사청 마을의 중심 부분.
- 아랫말 : 고내미 마을의 남쪽 부분.
- 아오실 : 사청 마을 남쪽의 들과 주변 구릉을 통칭하는 말. 통새골의 서남쪽이다.
- 아오실샘 : 사청 마을 남쪽 아오실에 있는 샘. 마을 대동샘이었다.
- 애또랑 : 원댕이 쪽에서 흘러내려오는 도랑을 사청마을에서 부르는 이름.
- 열마지기보 : 사청 마을과 영적굴 사이에 있는 보.
- 예전다리 : 장항선 철도에 놓여진 다리. 주포 오천간 도로가 지나는 건널목에 있는 다리, 보령리에서 내려온 하천이 지나는 다리, 원댕이 마을에서 내려온 하천이 지나는 다리를 모두 예전다리라고 부른다.
- 예전다리들 : 21호 국도와 장항선 철도 사이에 있는 들을 통칭하는 말.
- 옥항굴 : 원댕이 마을 동쪽에 있는 큰 골짜기. 배재산으로 향한다.
- 웅구밭들 : 사청 마을 서쪽에 있는 들. 굿세기의 남쪽이다.
- 원당(元堂) : 원댕이의 한자 표기.
- 원댕이 : 봉당리의 동남쪽, 아주자동차대학 입구에 있는 마을이다. 관산리 역말에 전해오는 전설에 의하면, 옛날 역말 당제 때 이곳 원댕이에서 먼저 당제를 지낸 후 역말에 와서 제를 지냈다고 한다.
- 원댕이저수지 : 원댕이 마을 서북쪽에 있는 저수지.

- 윗대청 : 사청 마을의 북동쪽 끝 부분. 작은 골짜기의 윗부분이다.
- 윗말 : 고내미 마을의 북쪽 부분.
- 윗말보 : 붓당굴 마을 앞에 있는 보. 고내미 마을 앞에 있는 들에 물을 댄다.
- 이미재 : 고내미 마을에서 오천면 갈현리 산수굴 쪽으로 넘어가는 고개. 꼭대기에 서낭당이 있다.
- 잣밭 : 고내미 마을의 서쪽. 즉, 뒷굴 입구에 있는 밭.
- 정자나무보 : 고내미 마을 앞 정자나무 위에 있는 보. 고내미와 연지리 마을 앞 들에 물을 대는 큰 보이다.
- 주포말 : 도랑댕이 저수지 서쪽에 있는 들.
- 통새골 : 원댕이저수지 아래쪽의 들.
- 하밭치 : 사청 마을의 남쪽, 애또랑의 서쪽 부분. 철도와 도로 사이를 일컫는 말이다.



고내미 마을(1996)



날근터 마을(1996)

5. 연지리(蓮芝里)

오천군 천동면(川東面)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연정리(蓮亭里), 갈두리(葛頭里), 지동(芝洞)과 석현리(石峴里), 산수동(山水洞)의 각 일부와 보령현 장척면(長尺面), 구수동(九水洞)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갈현리(葛峴里)라 하여 오천면에 편입하였었다. 이중 화고개 동쪽 부분은 오천면 소재지와 교통이 불편하여 1982년 2월 연지리라 하여 주포면에 편입되었다.

- 가재고랑 : 가줄 마을과 칩머리 마을 사이에 있는 산골의 남서쪽 골짜기.
- 가줄 : 연지리의 남쪽에 있는 큰 마을. 위뜸, 아래뜸, 마루패기로 구성된다.

- 가줄저수지 : 가줄 마을 동쪽에 있는 저수지
- 가지울 : 가줄의 다른 이름.
- 갈두(葛頭) : 칩머리의 한자 표기.
- 갈두리(葛頭里) : 칩머리의 한자 표기.
- 고사래 : 영적굴 마을 서쪽에 있는 들.
- 공판 : 칩머리 남쪽에 있는 평평한 언덕. 설터와 이미재 사이에 있다.
- 구수고랑 : 함박굴고랑의 다른 이름.
- 날근터들 : 밤까시 마을 동쪽에 있는 들.
- 내안보 : 칩머리 마을 동쪽에 있는 보. 관산리 내안들에 물을 댄다.
- 노적바위 : 영적굴과 칩머리 마을 사이의 청룡뿌리에 있는 바위.
- 담배밭골 : 연지리의 북쪽, 봉당리와의 경계에 있는 골짜기.
- 담배밭골저수지 : 담배밭골에 있는 작은 저수지.
- 대동샘 : 칩머리 마을 가운데에 있는 샘.
- 동녕뿌리 : 동메의 남쪽 끝 부분으로 이곳에 이어 가줄저수지 제방을 축조하였다.
- 동메 : 칩머리 마을과 가줄저수지 사이에 있는 산.
- 동미밭 : 동메와 하천 사이에 있는 밭.
- 두집매 : 칩머리 마을의 도로 동남쪽 부분. 집이 2가구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뒷동산 : 가줄 마을과 산골 사이에 있는 낮은 산줄기.
- 탄섬 : 산골 안에 뱀 머리처럼 내민 봉우리.
- 떨그렁바위 : 칩머리 마을과 가줄 마을 사이의 이미재에 있던 바위이다. 도로 확장으로 문혔다. 고인돌인데 위에 있는 돌이 움직여 붙여진 이름이다.
- 마루패기 : 가줄 마을의 남쪽 언덕 위에 있는 마을.
- 마장 : 연지리 마을의 서남쪽 끝에 있는 밭. 과거 마을의 소를 매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매봉재 : 밤까시 마을 서쪽에 있는 봉우리. 절굴재와 심박굴재 사이에 있다. 높이 137.5m이다.
- 물방아보 : 방천들의 남동쪽 주교면 관산리와의 경계 지역에 있는 보.
- 밤까시 : 연지리 최북단에 있는 마을.
- 방천들 : 안산의 동쪽에 있는 들.
- 방천보 : 가줄저수지 동쪽에 있는 들. 방천들에 물을 댄다.
- 배나무서낭 : 가줄 마을에서 화고개로 오르는 길 중간쯤에 있었다. 신수로 배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벼락번덕지 : 청룡뿌리와 테봉산 사이에 있는 평평한 지형.
- 부영재 : 가줄 마을 서쪽에 있는 산봉우리. 높이 239.8m이다. 주교면 교성리와 오천면 오포리 사이에 있다.
- 부채사리 : 가줄저수지 제방 동쪽에 있는 들.
- 불량답 : 가줄 위뜸의 남쪽에 있는 논. 과거에는 오천면 소성리 선림사 땅이었는데 토지개혁으로 사유화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 사거리 : 가줄 마을 입구에 있는 네거리. 과거 화고개와 관산리 역말로 통하는 길과 칩머리에서 주교면 주교리 소루구지로 통하는 길이 교차하는 사거리이다.
- 산골 : 가줄 마을과 칩머리 마을 사이에 있는 넓은 골짜기. 중앙은 논으로, 주변은 밭으로 개간된 넓은 골짜기이다. 윗산골과 아랫산골로 구분된다.
- 서낭댕이 : 담배밭골과 오천면 갈현리 이미재로 통하는 이미재 꼭대기에 있다. 신수는 잡목이다.
- 서낭댕이 : 화고개의 꼭대기에 있다. 주로 칩머리 사람들이 위하였다.
- 소루구지고개 : 가줄 마을에서 주교면 주교리 소루구지로 통하는 고개, 아래해고자리골에서 소루구지로 통하는 고개, 마루패기에서 대성마을로 통하는 고개, 주교리 대터굴로 통하는 고개 모두를 소루구지고개라고 부른다.
- 속질 : 칩머리에서 교성리로 통하는 재. 화고개의 동쪽 테봉산 봉우리의 바로 밑으로 통하는 길이다.
- 숨박골 : 담배밭골의 다른 이름.
- 쉼터 : 칩머리 마을과 산골 사이에 있는 옛 쉼터. 지게지고 화고개를 넘을 때 쉬어가던 곳이다.
- 시영밭 : 윗산골에 있는 밭.
- 심박굴재 ; 연지리의 동쪽 담배밭골에서 오천면 갈현리 산수골로 통하는 재.
- 아래뜸 : 가줄 마을의 동쪽 부분.
- 아래뜸 : 칩머리의 남쪽 부분.
- 아래해고자리골 : 해고자리골의 동쪽 부분.
- 아랫산골 : 산골의 남동쪽 부분.
- 아현산성 : 테봉산에 있는 테피식 산성, 성의 남쪽에 있는 화고개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생각된다.
- 안산 : 가줄 저수지 남쪽에 있는 산. 가줄저수지와 주교면 주교리 소루구지 사이에 있다.
- 안산쪽뿌리 : 안산의 북쪽에 있는 산줄기의 끝. 이곳에 이어 제방을 축조하였다.

- 앞논 : 가줄 마을과 가줄저수지 사이에 있는 논.
- 앞들 : 칩머리 마을 동쪽에 있는 들.
- 연정동(蓮亭洞) : 영적굴의 한자 표기.
- 연지(蓮枝) : 옛 오천면 갈현리 2구(山石, 蓮芝) 중 1구.
- 열마지기보 : 영적굴 마을 동쪽에 있는 보. 봉당리에 물을 댄다.
- 영적굴 : 연지리의 북쪽 언덕 위에 있는 마을. 밤까시와 칩머리 사이에 있다.
- 영천골 : 담배밭골의 다른 이름.
- 옷샘 : 윗산골 안에 있던 샘. 물이 좋아서 옷 올렸을 때 씻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읍고랑 : 칩머리 마을의 동북쪽 골짜기.
- 위뜸 : 가줄 마을의 서쪽 부분.
- 위뜸 : 칩머리의 북쪽 부분.
- 위해고자리골 : 해고자리골의 서쪽 부분.
- 윗산골 : 산골의 서북쪽 부분.
- 이미재 : 담배밭골에서 오천면 갈현리 이미재로 통하는 재. 꼭대기에 서낭당이 있다.
- 이미재공동묘지 : 담배밭골 안에 있는 공동묘지.
- 절굴재 : 영적굴에서 오천면 교성리로 통하는 재.
- 정자나무 : 영적굴 마을 북편에 있는 느티나무.
- 정자나무 : 칩머리 마을 입구에 있다. 둘레 7.8m 수관폭 26m의 거대한 나무이다. 과거에는 정월 초닷새 안에 날을 잡고 생기복덕을 보아 당주를 정하여 지냈으나 요즘은 정월 초이튿날 지낸다. 당주도 마을 사람들이 돌려가며 맡는다.
- 중터 : 화고개와 칩머리 마을 사이에 있는 옛 쉼터. 지게지고 화고개를 넘을 때 쉬어가던 곳이다.
- 지동(枝洞) : 가줄의 한자 표기.
- 지동(芝洞) : 가줄의 한자 표기.
- 참나무밭 : 칩머리 마을의 중앙 즉, 마을 회관 있는 곳을 과거에 부르던 이름.
- 청룡뿌리 : 영적굴과 칩머리 사이에 내민 산줄기. 고린장이라 불리는 백제시대 무덤이 많다.
- 칩머리 : 연지리의 중앙에 있는 큰 마을이다. 위뜸, 아래뜸, 두집매로 구성된다. 마을의 입구에는 정자나무가 있어 매년 정월 초이튿날 제를 지낸다.
- 태봉산(台峰山) : 태봉산의 다른 이름.

- 태봉산 : 연지리 동쪽에 있는 교성리와의 경계가 되는 산봉우리. 산 정상 부분에 테피식 산성(아현산성)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형도에 태봉산(台峰山)으로 표기되고, 숲이 우거져 성도 보이지 않으므로 요즈음은 태봉산으로 부르는 경향이 있으나 노인들은 지금도 태봉산으로 분명히 발음한다. 높이 240.0m이다.
- 하고개 : 화고개의 다른 이름.
- 하우현(下羽峴) : 화고개의 한자 표기
- 하우현(下牛峴, 호우기지) : 하고개. <1911, 朝鮮地誌資料>
- 학우현(鶴羽峴) : 화고개의 한자 표기.
- 학현(鶴峴) : 화고개의 한자 표기.
- 함박굴고랑 : 태봉산 동남쪽 골짜기. 이곳을 통하여 속질이 나 있다.
- 해고자리골 : 가줄 마을의 남쪽에 있는 골짜기. 위해고자리골과 아래해고자리골로 구분한다.
- 화고개 : 주교면 연지리에서 오천면 교성리, 오포리로 넘어가는 재. 과거 오천의 충청 수영과 관산리 역말을 연결하고, 오천 사람들이 대천장을 보러 다니던 고개로 통행량이 많았다. 주교면, 주포면, 오천면의 경계가 된다. 꼭대기에 성황당이 있다.



백제고분(1999)



영적골 정자나무(1996)

도움말 주신 분(1996년 현재)

한주석(55)	주포면 관산리 92	최동규(58)	주포면 마강리 291
이영구(78)	주포면 연지리 504 연정동	김청룡(78)	주포면 보령리 158-2
조규남(62)	주포면 연지리 497 칩머리	김지룡(75)	주포면 보령리 206-2
강영우(61)	주포면 연지리 760 가줄	조규성(75)	주포면 봉당리 449
최종혁(55)	주포면 마강리 181-2	조병철(64)	주포면 봉당리 786
김인성(79)	주포면 마강리 125-2	조배환(65)	대천동 197
현종열(47)	주포면 마강리 495		